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 AI 성장 모멘텀 등으로 급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4일(화) 미국 증시에서는 미-이란의 협상 가능성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따른 WTI 유가 급락(-6.4%), 팔란티어(+29.5%), 캐터필러(+5.6%) 호실적, 대만 IT매체의 2027년 메모리 조기 완판 보도 등에 따른 AI 성장 모멘텀 회복에 힘입어 다우와 S&P500은 신고가를 경신(다우 +1.7%, S&P500 +1.8%, 나스닥 +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6%).

현재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위험선호심리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쏠림 현상이 심화되기 보다는, 업종간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이는 한동안 증시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미-이란 갈등이 완화 국면으로 돌입하는 과정에서 유가 및 금리의 레벨 다운이 일어난 데서 기인. 전일에도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으며, 카타르 등 주변국의 중재 하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이들 전쟁 리스크가 일순간에 소멸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기 진통 속 협상 타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또한 7월말 아마존, MS 등 빅테크 실적에 이어, 이번주 주요 기업 실적을 통해 AI 수요 및 수익성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팔란티어의 상업, 정부 매출 급등은 “데이터 센터 증설 -> 클라우드 시장 매출 성장 -> AI 소프트웨어 계약 확대”로 이어지는 등 AI 수요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역시 호실적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의한 발전 및 건설장비 실적 증가에서 비롯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 AI 투자 확대가 GPU, 반도체를 넘어 전력 및 변압기, 건설장비 등 2차 수요를 개선시키고 있음을 시사. 이처럼 매크로 환경 호전 및 2분기 실적시즌 모멘텀 개선이 동반되고 있는 환경임을 고려 시, 추후 일시적인 차익실현 및 변동성 확대가 나타더라도,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의 실효성은 유효할 전망이다.

전일 코스피는 유가 약세, 미국 반도체주 장중 반등 성공 소식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반도체주 단기 차익실현 압력으로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 마감(코스피 +1.7%, 코스닥 +1.9%).

금일에는 유가 급락,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마이크론(+7.6%) 등 반도체 중심의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코스피200 야간선물 4.9%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물론 장 마감 후 AMD(+7.0%)가 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및 가이던스 상향에도, 시간외 8%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 있겠으나, 이는 실질적인 시장 눈높이 미충족 및 최근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7월 31일 기점으로 국내 증시는 회복 경로에 진입한 가운데,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의 반등 탄력이 강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3거래일 누적 상승률: 코스피 +13.7% vs 코스닥 +21.1%). 최근 코스닥 강세는 코스피에 비해 낙폭 과대 성격이 짙다는 데서 기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직전인 7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각각 -38.6%, -47.4%로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컸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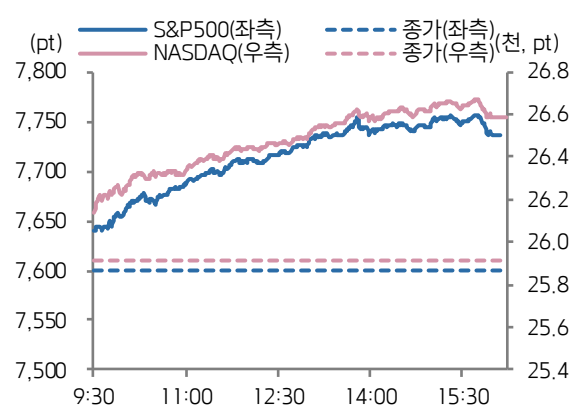
수급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피 신용잔고는 21.6조원으로 고점 대비 약 27% 감소한 데 반해, 코스닥 신용잔고는 5.8조원으로 고점 대비 47.2% 급감한 상태. 코스닥의 강제 청산이 더 심했던 만큼, “수급 빈집 + 낮은 매물 부담” 인식을 심어준 모습. 단일종목 레버리지 쏠림 현상이 덜해지다 보니, 코스피에 비해 베타가 큰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분산된 측면도 존재(4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내 비중은 4.8%로 3일 5.4%에서 감소 vs 7월 평균 거래대금 비중 33.0%).

이처럼 최근 3거래일간 코스닥과 코스피의 성과 차별화는 “반도체 + 대형주”에서 “비반도체 + 중 소형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 그러나 아직까지 “단기 전술적인 키밋추기” 성격이 크며, 중 소형주 장세와 같은 구조적인 색깔 변화가 이루어질 여력은 크지 않아 보임. 전일 미국 반도체주 급등처럼,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 코스닥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등과 같이 반도체 포함 대형주 장세를 뒷받침하는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

결론적으로, 지금은 특정 업종, 특정 시장만 독주하는 것이 아닌, 수익률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지수 회복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판단. 갈아타는 장세가 아닌 추가해야 하는 장세이기에, 향후 시장 대응에 있어서 바벨 전략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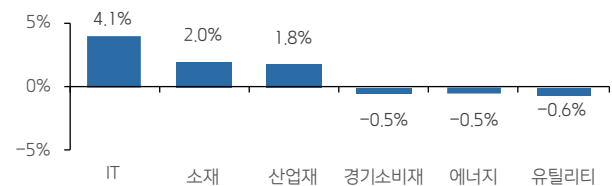
따라서, 1) 단순 낙폭 과대 관점에서는 바이오, 소부장 등 주력 업종 중심의 코스닥 매수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2) 코스피 내 주도주인 반도체 등 대형주 비중은 여전히 중립 이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적절. 달리 말해, 한동안 반도체 독주 장세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투자 비중을 9:1 수준으로 편중 배치를 했던 것으로 가정할 경우, 현 시점부터는 8:2 혹은 7:3 수준으로 비중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한 시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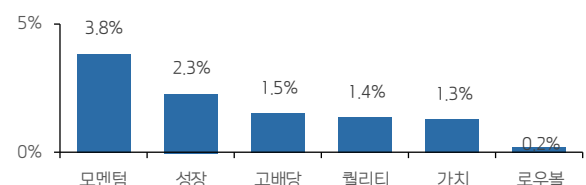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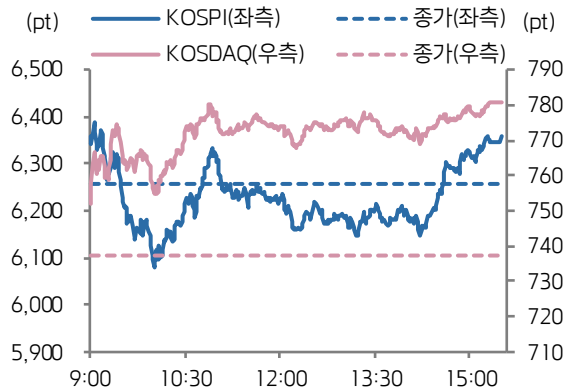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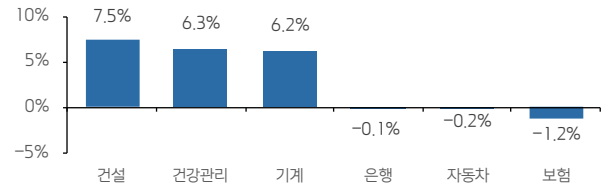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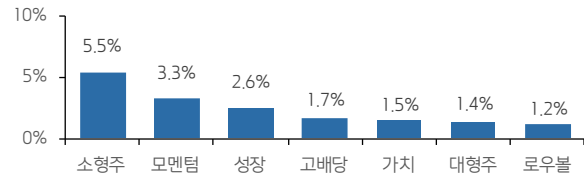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09.38	+1.96%	+13.8%	GM	88.31	+0.72%	+8.6%
마이크로소프트	492.81	+1.06%	+1.9%	일라이릴리	1,115.68	-0.51%	+3.82%
알파벳	377.65	+1.11%	+20.65%	월마트	111.55	+0.76%	+0.13%
메타	587.94	-0.39%	-10.93%	JP모건	357.52	+1.38%	+10.96%
아마존	277.42	-2.32%	+20.19%	엑손모빌	153.96	-0.71%	+27.94%
테슬라	327.35	+1.64%	-27.21%	세브론	190.40	-1.44%	+24.93%
엔비디아	211.94	+2.56%	+13.64%	제너럴일렉트릭	111.55	+0.8%	+0.1%
브로드컴	418.16	+6.61%	+20.82%	캐터필러	876.54	+5.6%	+53.01%
AMD	518.58	+7%	+142.15%	보잉	237.16	+1.57%	+9.23%
마이크론	892.67	+7.62%	+212.77%	넥스트에라	87.20	+0.8%	+8.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358.95	+1.62%	+50.89%	USD/KRW	1,430.35	-0.11%	-0.64%
코스피200	1,000.03	+1.35%	+65.03%	달러 지수	99.89	-0.01%	+1.59%
코스닥	780.72	+5.88%	-15.64%	EUR/USD	1.15	+0.19%	-1.83%
코스닥150	1,338.91	+7.05%	-13.47%	USD/CNH	6.75	-0.15%	-3.26%
S&P500	7,736.52	+1.79%	+13.02%	USD/JPY	157.75	+0.36%	+0.66%
NASDAQ	26,584.99	+2.59%	+14.38%	채권시장			
다우	54,085.88	+1.71%	+12.53%	가격	DTD(bp)	YTD(bp)	
VIX	16.50	+4.04%	+10.37%	국고채 3년	3.742	-1.8bp	+79.1bp
러셀2000	3,036.98	+1.85%	+22.36%	국고채 10년	4.260	-0.2bp	+87.5bp
필라. 반도체	12,179.26	+6.55%	+71.95%	미국 국채 2년	4.192	-4.6bp	+71.9bp
				미국 국채 10년	4.613	-6.3bp	+44.6bp

다우 운송	21,779.91	+2.58%	+25.48%	미국 국채 30년	5.174	-5.3bp	+33.1bp
상해종합	3,822.29	+0.33%	-3.69%	독일 국채 10년	3.107	-4.5bp	+25.2bp
항생 H	8,574.26	-0.9%	-3.8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8,428.95	-0.27%	-7.97%	WTI	75.77	-5.69%	+32.91%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9.36	-5.26%	+30.42%
Eurostoxx50	6,486.70	+0.94%	+12.01%	금	4,152.60	+1.52%	-7.67%
MSCI 전세계 지수	1,145.69	+1.3%	+12.92%	은	60.25	+4.13%	-14.67%
MSCI DM 지수	4,905.02	+1.18%	+10.71%	구리	664.35	+1.57%	+16.92%
MSCI EM 지수	1,651.40	-0.87%	+17.59%	BDI	2,843.00	+4.06%	+51.47%
MSCI 한국 ETF	171.14	+6.8%	+76.03%	옥수수	465.50	-1.48%	+1.0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38.50	-1.92%	+16.99%
비트코인	64,297.15	+0.87%	-26.64%	대두	1,177.75	-1.22%	+10.64%
이더리움	1,875.38	+0.42%	-37.02%	커피	308.80	+1.35%	-1.8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